

예술 향기·사람 향기 가득...전라도 대표 '문화 아이콘'



월간 '예향'의 발자취

외길 인생 등 다양한 인물 소개
사람중심 문화예술 매거진 표방
국내외 특집·기획 기사 발굴
지역문화계의 나아갈 방향 제시
'신남도여지도'·'남도미미락' 등
남도여행객 길라잡이 역할 톡톡

“...그동안 '예술의 고장'임을 자처해온 우리들에게 그러한 긍지를 가꾸고 또 일구어 나갈 마땅한 자리하나가 없었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광주일보는 우리 모두의 이런 목마름을 씻어주고 또 우리의 다정한 인간정신을 더불어 살려나가기 위한 갈망에 부응하고자 전라도 사람의 잡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984년 10월, '전라도의 멋과 얼을 지켜나갈 전라도 사람들의 잡지'를 표방한 월간 '예향'이 첫 선을 보였다. 창간호는 고 오승운 화백의 LA올림픽을 소재로 한 작품 '개선' (凱旋)을 표지화로 '전라도·전라도 사람들'을 특집으로 다뤘다. 17년 동안 발행되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예향'은 IMF의 경제적 한파 속에서 2002년 2월호를 끝으로 휴간에 들어가야 했다.

새얼굴의 예향을 발간하기 까지 걸린 휴지기는 11년. 광주일보는 창간 61주년에 맞춰 2013년 4월호(통권 210호)를 시작으로 '월간 예향'을 복간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세계(Global)와 지역(Local)을 아우르는 '글

로컬'(Glocal) 문화예술잡지를 지향하는 '제2의 창간'이었다. 기존 잡지보다 판형을 키우고 문화예술 전문잡지로 차별화했다.

◇세대를 이어주는 지역 문화예술 잡지="제 어머니가 '예향'에 실린 것 아세요?" 지난 2016년 9월에 (사)희망의 망고나무 대표를 맡고 있는 이광희 패션 디자이너에게 인터뷰를 요청할 때 일이다. 이 대표는 오래전 '예향'에 게재된 어머니 기사를 기자에게 상기시켰다. 이 대표의 어머니는 '해남의 성자'(聖者)로 불린 아버지(이준목 목사)와 함께 평생 사회봉사 활동을 펼 김수덕 여사이다.

'예향' 창간 10주년 특별 연재로 기획된 '전라도 여인들' 첫 번째 순서로 어머니 김여사의 헌신적인 삶이 1994년 10월호에 소개됐다. 그렇게 해서 부모의 '사랑의 유전자'를 이어받아 아프리카 빈민들을 위해 망고나무를 심는 봉사활동을 펼치는 이 대표와 어머니의 이야기는 22년의 시간을 두고 한 잡지에 게재됐다.

월간 '예향'은 '사람' 중심의 잡지를 지향한다. 외길을 걸어온 문화예술계 명사와 신진 예술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오고 있다. 100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를 비롯해 피아니스트 한동일, 첼리스트 정명화, 배우 김수미, 미술사학자 최완수, 섬진강 시인 김용택, 관광촌 화가 황재형, '뮤지컬계 미다스 손'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구멍가게' 팬화작가 이미경 등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세계를 소개했다.

또한 월간 '예향'은 매월 특집과 기획을 통해 광주·전남 문화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다. '예향, 문화융성의 해를 열다'(2014년 1월호), '이젠 걸쳐로드 금남로'(2015년 2월호), '건축, 문화광주 아이콘 되다'(2016년 4월호), '문화로



김용택 시인



이미경 작가



김형석 철학자



정명화 첼리스트

먹고사는 광주를 꿈꾼다'(2017년 6월호), '예향의 미래, 유네스코 세계유산'(2018년 6월호)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 미술관 기행'(2014년)과 '동네 책방에 빠진다. 책방별곡'(2018년), '위라벨시대, 문화관광이 뜬다'(2019년) 시리즈를 통해서 국내외 변화하는 문화현장을 찾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광주·전남 문화예술계 매개자 역할 =월간 '예향'은 '광주정신'을 잊지 않으면서 '예향' 전라도의 전통과 문화예술의 자긍심을 더욱 빛나게 하는 '전라도적인 것'과 '아날로그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 살아라! 전라도 사투리'(2014년 3월호), '뿌리의 정신, 종가를 다시 본다'(2017년 2월호), '백만송이 이야기 꽃 피어라 5·18'(2013년 5월호) 등은 예향의 정수를 보여준다. '신(新)남도 여지도'와 '남도 미미락', '신(新)남도 택리지' 시리즈를 통해 전남 22개 시·군의 멋과 흥, 맛을 소개해 오고 있다. 남도를 찾은 여행자에게는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 밖에도 월간 '예향'은 트렌드와 여행, 리빙, 음식, 패션, 스포츠 등 생활과 밀착된 기사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 1980~2000년대 '예향'에 실린 기사들은 그

자체로 훌륭한 '기록 보관소'(archive) 기능을 한다. 지금은 작고한 소설가 박화성, 시인 서정주, 극작가 차범석, 출판인 한창기, 작곡가 정추 등 예술인의 생생한 육성을 접할 수 있다. 군사정권 아래에서 금기시됐던 근·현대사의 진실을 깨는 작업도 돋보인다. '사건으로 본 전남 농민운동사'와 '광주·전남 근·현대사의 현장에서 엮는 대하기획'(1990년), '호남 인물사'(1993년), '노래와 함께 역사와 함께'(1994년) 등 시리즈는 망각된 역사를 한발 앞서 조명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말한다. 월간 '예향'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광주·전남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담론을 생산하고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다채로운 볼거리와 읽을 거리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월간 '예향'은 매월 1일에 발행된다. '예향'에 게재된 특집과 초대석 인터뷰, 기획 등을 요약한 기사는 광주일보 '굿모닝 예향'과 '예향' 블로그(blog.naver.com/art811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창간호



200호



복간호

가짜뉴스에 숨 막히는 세상 신문이 세상을 깨끗하게 합니다

눈과 귀를 가리는 가짜뉴스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신문은 맑은 뉴스가 퍼져나오는 뉴스 청정기입니다.

